

스스로를 돕자

화보법이 개정되었다.

화보법의 입법 당시와는 상당한 시대적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민주화·개방화의 조류는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일까?

지나간 일이지만 필연적인 변화라면 우리 스스로의 능동적이고, 발전적 측면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화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건물 대상규모가 조정되고, 적용지역이 확대되어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되던 우리의 소망이 부족하나마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제 협회가 축적하고 있는 방재기술을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 곳에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응집된 지력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방화관련 법규중심의 화재예방 안전점검에서 손해보험 종합위험관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점검보고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건물 안전점검 내용이 방재사항은 물론, EML평가, 화재 및 폭발위험조사, 화재보험요율 산정에 필요한 건물·기계·가스·액산정, 이재이력 등 세부사항을 조사하여 원수사 및 특건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의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방재 전문인 교육을 통해 차원높은 점검능력 배양은 물론 특수건물 추가지역내의 석유화학단지외 용역점검을 대비한 원자력 발전소 전문점검팀을 구성하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방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또한, 새로이 적용될 지역에 대한 예비점검이 한창이고, 집체교육을 통한 기술직원의 방재기술 능력배양에 모두가 매진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앞날의 희망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역할분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룩해 놓은 방재분야의 업적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협회의 존재가치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우물안 개구리마냥 주변의 상황변화에는 둔감한 채 묵묵히 업무만을 열심히 수행한다한들 우리의 진면목을 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릴 것은 되도록 많이 알려져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팬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방재전문기관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위해서 특수건물 소유자, 사원사 및 관계기관 등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함은 물론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는 협회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로서 화재안전점검을 위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여러분야로 확대·발전시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방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92년 10월에는 3단계 푸울해체로 인한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같은 화협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지혜를 다시 한번 모아야 할 것이다.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요즈음 정부에서는 하루에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에서는 저축·절약·생산성 향상·수출·일을 10% 더 하자고 부르짖고 있다.

웬지 새삼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한다. 최선을 다 했는지?

분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 모두 조직의 계층안에 걸맞는 역할 분담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행동이 실천에 옮겨져야 할 때다. ☹